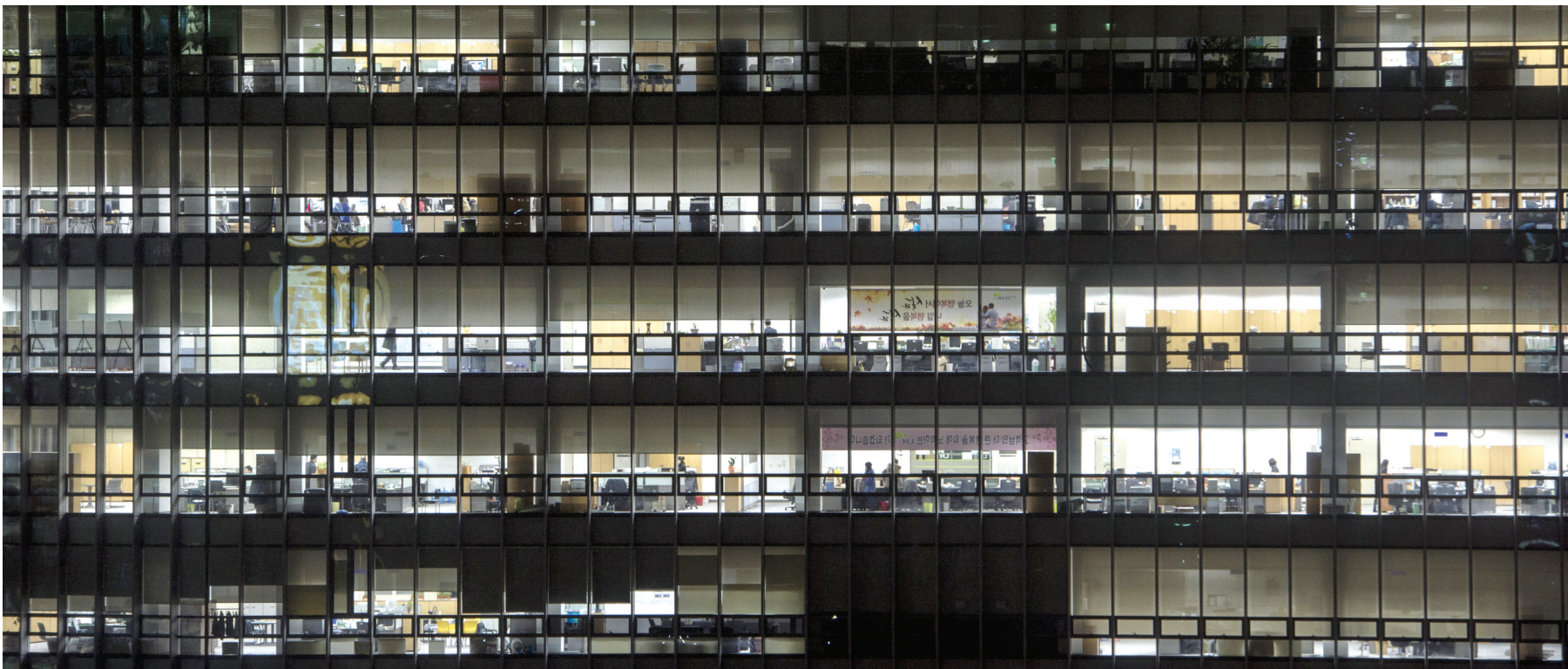


저무는 2015 ... 내년은 희망의 해 되길



새해를 사흘 앞둔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LH공사 사옥에 밤늦은 시각에도 불이 환히 밝혀져 있다. 올 한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기지만 직원들은 이날도 새해 맞이에 분주했다. 새해 첫날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광주·전남도 어린이 견고하고 희망의 태양이 활활 타오르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조선대, 인문계 정원 300명 이공계로 돌린다

최대 年 300억 지원 '프라임 사업' 선정 위해 파격적 개혁 초안 제시  
호남대·광주대 2~4개 인문계 학과 폐지 검토·전남대도 조정키로

'대학 구조조정'의 총성이 울렸다. 산업 수요에 맞춰 이공계를 늘리려는 정부발(發) 대학 구조개혁의 서막(序幕)이 오르면서다. 당장, 조선대는 300명에 육박하는 인문계열 정원을 이공계로 돌리는 파격적 구조개혁 초안을 내놓았고 호남대·광주대는 2~4개 인문계 학과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남대도 군불 때기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29일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19개 대학을 선정, 3년간 6000여억원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PRIME)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취업·진로 중심 학과위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프라임' 사업 중 하나인 사회 수요에 맞춰 학과와 정원을 전면 개편한 '사회 수요 선도대학'(대형)으로 선정되면 매년 150억 원씩 3년간 4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우수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은 대학은

3년간 900억원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분야는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여기에 선정되면 평균 50억씩 지원받는다.

지역 대학도 사활을 걸며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미 조선대는 16개 단과대를 14개로 줄고 81개 모집 단위를 56개로 줄이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 30일 공개한다. 글로벌경영대를 4개 학부(유럽·아시아지역 학부, 국제학부, 경영학부)로 확대하고 ICT 융합대학이 신설된다.

외국어대는 유럽·아시아지역학부로 재편, 글로벌경영대에 편입되고 체육대 스포츠경영학·공대 산업공학과도 글로벌경영대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자동차학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인문대도 정원 조

정과 신설된 문화컨텐츠학부 신설 등을 포함해 인문문화대로 바뀐다. 호남대도 인문계열 2~3개 학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며 광주대도 프라임사업(대형) 조건을 갖추기 위해 3~4개과 폐과 및 자동차과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전남대도 총장이 기시간담회에 프라임사업(소형) 의지를 드러내며 군불 때기에 들어간 상태다.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반발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고 수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로서는 연간 50~150억원의 지원금을 모른척 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계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인수대금 7228억 완납...금호아시아나그룹 6년 만에 재건

박삼구 회장 "기대 어긋나지 않게 창업초심으로 혼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금호산업 채권단에 경영권 지분(지분을 50%+1주) 인수대금 7228억원을 완납했다. <관련기사 14면>

박 회장은 2009년 12월 유동성 위기로

그를 지주사적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에 넘어간 지 6년 만에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되찾았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금

호터미널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룹 재건을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켜본 많은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창

업 70주년을 맞아 경영방침은 '창업초심(創業初心)'으로 정했다. 1946년 택시 2대로 창업한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금호아시아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고 박인천 창업 회장님께서 부지런함·정실·정직·책임감·끈기의 다섯 가지를 늘 강조하셨다"며 "이 다섯 가지 정신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70년 동안 지속하게 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내년 총선 후보 경선 통해 공천 참신한 인물 영입 호남민심 반영"

안철수 의원 인터뷰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내년 총선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저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경선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 제도를 마련, 민심에 부응하겠다"며 "내년 2월 초순 창당 예정이기 때문에 경선을 실시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 있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 망국적 지역 차별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전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 세력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당 세력의 통합에 나서겠다"며 "지분 나누기가 아닌 국민의 감동을 견인하는 통합만이 아닌 재편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신당 바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든 국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 개혁 등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온 몸을 던져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은 2016년 1월 1일 7면>

안 의원은 "호남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호남 민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탈당 이후 전국 투어에 나선 결과,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도 신당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호남 소외 문제와 관련, 안 의원은 "인사와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 차별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더 심화하

는 신당 세력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당 세력의 통합에 나서겠다"며 "지분 나누기가 아닌 국민의 감동을 견인하는 통합만이 아닌 재편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신당 바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든 국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 개혁 등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온 몸을 던져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100석 확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데 대해 안 의원은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적 퇴행에 국민들이 저항하고 막아낼 것이며 신당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 100석 이상을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과 신당을 함께 하는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아직 다른 당에 계신 분의 거취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청년들 평균 취업준비기간 25.7개월

청년 종합실태조사

1인당 평균 부채 4031만원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들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은 25.7개월로, 첫 희망 급여는 평균 2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한명당 평균 부채액은 4031만원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400만원 미만(4.7%)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은 공공기관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20.2%)·대기업(16.2%)·창업(8.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4개월간 광주 거주 만 19~3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종행기자 gole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제61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17번

###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촉촉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 HERA

www.hera.co.kr